



김우영 총장, 코로나19 극복 기원 응원 릴레이 참여

전주교육대학교(김우영 총장)는 28일 빠른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며, 응원 릴레이에 동참했다.

희망 캠페인 릴레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고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우영 총장은 이날 직접 쓴 응원문구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전라북도', '#코로나19극복 전주교대가 응원합니다' 란 글귀를 대학 공식 페이스북 등에 올렸다.

한편 김우영 총장은 다음 참여자로 호원대학교 강희성 총장을 지명했다. /장은성 기자



한전 군산지사, 지역 농특산물 구매 아동복지센터 기탁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지사장 정관영, 위임장 이수길)는 지난 27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특산물을 구매해 군산나눔지역아동센터에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역 농특산물 구매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해 농가에 보탬이 되고, 구매농산물을 군산나눔지역아동센터에 기부해 코로나19로 인해 방학이 길어져 급식 및 점심식사가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위해 진행됐다.

정관영 한전 군산지사장은 "집체된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한전 군산지사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굳은 연대로 굳건히 견디자!

김승수 전주시장,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참여

김승수 전주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지치지 말고 굳은 연대로 굳건히 이겨내자는 SNS(소셜네트워크)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8일 후안 이그나시오 모로 주한 스페인대사의 지목으로 외교부의 코로나19 극복 릴레이 캠페인인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에 참여했다. 스테이 스트롱은 응원 문구를 담은 로고를 만들어 SNS에 올린 뒤 캠페인을 이어갈 친구 세 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시장은 이날 마스크를 쓴 채 'Stay Strong in SOLIDARITY(굳은 연대로 굳건히 견디자)'라는 메시지의 피켓을 들고 캠페인에 참여한 뒤 영국관광공사 아시아지역 의장이자 영화감독인 마누엘 알바레스,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사무총장 버나디아 트잔드라데위, 미국 재즈의 도시 뉴올리언스의 시장 라토야 캔트렐을 다음의 참여자로 지목했다.

김 시장의 스테이 스트롱 참여는 지난해 전주시에 매년 주관하고 있는 전주세계문화주간인 '스페인문화주간'을 통해 스페인대사관과 맺은 우호관계의 결과다. 후안 이그나시오 모로 주한스페인대사는 김 시장과 함께 KBS 전 아나운서로 현재 방송인 겸 여행작가인 손미나 씨를 캠페인을 이어갈 동참자로 지목했다.

이 캠페인은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트



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강경화 외교부장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등 주요 인사가 대거 참여하고 있다.

노상목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언택트(Untact : 비대면)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새로운 트렌드"라며 "현재 물리적인 국제 교류는 힘든 상황이지만 온라인 등을 통한 캠페인 참여와 코로나19 정책을 세계도시에 홍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해외 홍보와 국제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 이은지 교수, 간호대학 발전기금 기탁

"간호대를 졸업한 선배로서 우리 간호대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전북대학교 이은지 교수는 지난 27일 김동원 총장을 찾아 간호대학의 경쟁력을 위한 기금으로 써달라며 2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해 훈훈함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3월 1일자로 전북대 신임 교수로 부임한 이 교수는 이번 기금을 간호대에 지정 기탁할 예정이다.

이에 발전지원재단은 이 기금을 간호대학의 좋은 교육 환경 구축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전북대에서 교수로 첫 출발을 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학생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작은 금액이지만 이 기금이 앞으로 함께 지내게 될 학생들이 미래를 향해 정진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원 총장은 "학생들을 위해 큰 마음을 보여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며 "초심을 잃지 말고 앞으로 학생 교육과 연구에 정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 온라인 영상 제공

전북장애인체육회(회장 송하진)는 도내 장애인체육인들을 위한 생활체육 교육영상을 제작해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생활체육 교육영상은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줄넘기, 신문지, 탁구공 등)을 가지고 장소, 시간의 제약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소규모 모임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의 프로그램이다.

해당영상은 28일부터 전북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www.jbsad.or.kr),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전북장애인체육회-100185644946680/),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jbsad7976/)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북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아직 실내체육시설의 운영 재개에 대한 정부방침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실내체육 활동을 위주로 해왔던 장애인들에게 운동부족, 무기력증 등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책이기도 하다"며, "그간 현장에서 운영한 피드백을 통해 좋은 평가를 받았던 프로그램 위주로 지속적으로 제작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임실경찰, 업무 유공 경찰관 표창 수여

임실경찰서(서장 이동민)에서는 음주운전 도주 차량 신속 현장대응으로 음주 운전자 검거에 유공이 있는 경찰관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며 노고에 격려했다.

관촌파출소 경위 박동식은 지난 20일 야간에 전주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대한 타서 공조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출동 목 차단 근무 중 음주 의심 차량을 정차시켰으나 도주하는 것을 약 15km를 추적 검거했다.

이동민 경찰서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음주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음주 운전자는 꼭 검거하여 제2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현장 경찰관 음주운전 차량 추격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20년 11월 29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50)9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병성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674	남원지사 632-3386	고창지사 563-68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8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산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555	진안지사 433-3064
효리지사 010-6645-9335	팔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385	정읍지사 536-3787
	군산지사 010-6789-03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22-6157
	익산지사 659-99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기안전공사, 혁신도시 소재 도서관에 책소독기 지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는 전북혁신도시 소재 도서관에 책소독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8일 완주군청에서 도서관 기자재 전달식을 갖고, 완주군 공취팔팔도서관에 책소독기 1대, 전주시 광복 작은도서관에 PC 3대를 각각 기증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교육문화 거점인 도서관 지원을 통해, 주민 복지와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조성완 사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전북혁신도시의 인구특성상 아동104명(10세 이하)이 높은 점을 고려해, 도서관 인프라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지역 안전은 물론 교육문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2014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지역사회의 안전복지와 상생협력을 위해 꾸준히 힘써 오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안디옥교회, 소외계층 위한 온정의 손길

전주지역 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28일 전주안디옥교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성금 1000만원을 전주시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지역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모금된 것으로, 시는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한 뒤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전달할 예정이다.

오성준 담임목사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나눔 실천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